

LEADER OF
A PREMIER LIFESTYLE

KOREA

NOBLESSSE

4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Cartier

구겐하임 미술관 영 컬렉터스 파티에 초대합니다

예술 작품을 보는 심미안을 기르고 본인만의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익히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트와 컬렉팅에 관심이 많은 21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술 애호가를 영 컬렉터라 칭하고, 이들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밤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현대미술계의 재능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신진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펀드를 모금하는 동시에 미술 애호가들이 교류하는 장인 구겐하임 영 컬렉터스 파티(Guggenheim Young Collectors Party)를 마련한 것. 주얼리 브랜드 데이비드 여먼(David Yurman)이 메인 스폰서로 나선 이날 파티에는 영 컬렉터스 위원회 공동 회장 미샤 노누(Misha Nonoo), 에번 여먼(Evan Yurman), 아티스트 마거릿 리(Margaret Lee), 네이트 로먼(Nate Lowman) 등이 참석해 신인 아티스트를 꾸준히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인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미국 아티스트 캐리 매 웬스(Carrie Mae Weems)의 30여년 작품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작품을 감상하고, 뉴욕의 떠오르는 신예 DJ 첼시 레일랜드(Chelsea Leyland)의 디제잉으로 흥겨운 파티 무드에 빠져들었다. 파티를 주최한 구겐하임 파운데이션은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예술 연구 사업, 출판 등을 이용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으며 이를 미술 애호가, 컬렉터와 함께 공유해왔다. 영 컬렉터스 파티는 이들의 노하우와 현대미술을 아끼는 젊은 컬렉터의 애정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제 어버니즘에 집중할 때

지난 11일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서울에 왔다. 자신이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개관 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그녀는 "그간 지형과 건축물의 조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번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건축물의 조화를 고민하다 보니 굉장히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왔다"고 전했다. 프리토크 시간에는 "DDP가 너무 거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형과 조화를 이루려 일부러 곡선을 많이 사용했고, 만약 직선으로만 건축물을 지었다면 지금보다 더 커 보였을 것"이라며 "스케일은 건축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수차례 어버니즘(urbanism)을 언급하며 "최근 서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도 어버니즘을 어떻게 구현할지 집중해야 할 것"이라 전하고 이어 "도시의 성장과 특성을 건축에도 부여해야 한다. 새 건물을 짓는 것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도시의 변화하는 특성을 살리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DP에선 3월 21일부터 개관전으로 자하 하디드를 재조명하는 <자하 하디드_360도>전이 열린다. 작은 수저 하나부터 DDP 같은 대규모 건축물까지 광범위한 창작 영역을 자랑하는 그녀의 작품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3월 26일까지 열리는 1차 전시에선 그녀가 디자인한 가구와 신발, 보석 등 40여 점을 소개하고, 이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리는 2차 전시에선 건축 모형과 상들리에 등을 선보인다. 문의 www.ddp.or.kr



DDP의 내부



자하 하디드



정연두의 '베르길리우스의 통로'

무거워도, 가벼워도 정연두는 옳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정연두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6년 만에 개인전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를 개최한다. 전시회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연두는 "학생 시절 로댕갤러리(삼성미술관 플라토의 전신)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아티스트를 꿈꿨는데 이곳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어 부담도 크고, 감회가 남다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신작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삼성미술관 플라토에 상설 전시된 로댕의 '지옥의 문'을 적극 활용해 정연두의 시각에서 새롭게 재현한 가상 조각품이다. 실제 모델을 기용해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상을 촬영하고 3D 게임 장치인 '오쿨러스 리프트'를 통해서만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했다. 가상 현실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작품을 경험, '보는 것'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게 만든다. 또 다른 신작 '크레용팝 스페셜'은 아이돌 그룹 크레용팝을 지지하는 30~50대 아저씨 팬덤, 일명 '팝저씨'들과 함께 기획해 만든 설치, 퍼포먼스 작품. 크레용팝을 위한 대형 상설 무대를 만들었지만 정연두의 작품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팝저씨'들이다. 사랑하는 스타를 응원하고 이들의 성공으로 대리만족하는 평범한 이들의 욕망과 꿈을 보여주는 것. 이처럼 정연두는 K-POP 같은 대중문화부터 '본다'는 일상의 행위까지, 소재를 가리지 않고 예민하게 촉수를 세우고 예술적 질문을 던진다.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는 3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린다. 문의 www.plateau.or.kr